

우리하나되어

제 15권 제 3호

헬로쉽 교회 월보

2007년 3월 4일

영적 부흥을 기대하며 40일 특별 새벽기도회

부활절이 다가오면 항상 맞이하게 되는 새벽기도회, 올해도 변함없이 지난 2월 21일(수)에 시작되었다. 예년과 차이가 있다면 새벽기도회 기간이 일주일에서 40일로 늘어났다는 점이다. 지난 2001년, 현 성전에 입당하자마자 40일 새벽부흥회를 가

졌던 이후 6년 만에 다시 하는 40일 새벽기도회이다. 2001년 이후에는 봄과 가을(때로는 여름)로 나누어 새벽부흥회를 가졌고, 따라서 기간도 조금씩 줄어들었다. 또한 버지니아 캠퍼스 창립 이후에는 메릴랜드 캠퍼스와 버지니아 캠퍼스 중간 지점에서



새벽기도회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삶과 피를 마주한 성찬식

You Haven't Seen Nothing Yet!
곧 보리라!

새벽기도회

수난절 40일 새벽 부흥회

과거에 보지 못한 영적 부흥
(Revival Unseen in the Past)

개인과 가정과 교회위에

1. 성령의 기름부으심을 기다립니다.
2. 영혼의 추수를 기대합니다.
3.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일시: 2월 21일 ~ 4월 7일
월~금: 오전 5시 30분
토: 오전 6시
장소: MD, VA Campus
www.Fellowshipusa.com

일주일간 합동 새벽부흥회를 가져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40일의 마지막 부분인 4월 2일부터 7일까지는 힐튼 호텔 (타이슨스 코너)에서 합동 특별 새벽 부흥회를 가진다. 그 이전까지는 각 캠퍼스에서 새벽기도회를 가지게 되며, 맡은 책체인 성경 읽기 목록에 따라 나누고 있다.

그런데 왜 다시 40일 새벽기도회로 전환하고 있는 것일까?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일주일 특별 새벽기도회를 가졌는데, 생각보다 많은 교우들이 참석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부활절을 앞둔 이번 새벽기도회에는 40일간 기도하며 교우들과 함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었다”고 김원기 목사는 밝혔다.

지난 16년간 헬로쉽교회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며, 또한 많은 열매를 거두었다.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캠퍼스 모두 자체적인 성전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이를 발판으로 살아있는 예배, 생동하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의 면모를 한층 더 안정적으로 세워나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있음을 김원기 목사는 교우들에게 다음과 같이 도전하였다.

“You Haven't Seen Nothing Yet.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 역사하시려는 것 같다. 그래서 모든 교회 사역들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순수한 열정을 재확인하고 신앙의 야성을 되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안정’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변화를 원하지 않는 소극적인 자세로 사람을 이끄는 경향이 있다. 자신들이 익숙한 환경에 머물고, 자신들이 늘 해 왔던 방법으로 하길 원하도록 만든다. 그런데 사람은 무언가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믿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문제가 있



다. 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의 믿음을 요구하며 다가온다. 즉, 상식을 뛰어넘고, 익숙한 방법을 거부하며 전혀 생소한 방법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요구하신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순수한 열정’과 ‘야성’을 지녀야만 한다.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세워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골리앗의 조롱이 40일간 지속되어도 이스라엘에서는 어느 누구 하나 나서지 못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던 사람은 장수도 아닌, 군인도 아닌, 형들을 만나러 온 소년 다윗이었다. 그것도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믿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순수한 열정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야성을 지녔던 다윗이었다.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대로 물맷돌 5개 중 단 하나만으로 골리앗을 무찌르셨다.

우리에게도 다윗의 물맷돌이 있다.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며, 새롭게 변화되어 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세상에 전한다. 더 이상 우리는

인생의 안락과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여 살리기 위해 산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신앙의 ‘야성’을 회복해야 한다.

그러면 야성은 어디에서 올까? 그것은 바로 “예배와 기도에서 온다”고 김원기 목사는 교우들에게 도전하는 것이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가슴속에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으로 가득 차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장을 느낀 사람들은 기도 가운데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으로 뜨거워지게 된다. “복음을 위해 용감무쌍한 사람들이 만들어진다”며 김원기 목사는 새벽기도회에 대한 기대를 피력하였다. 또한 “새로운 영혼에 대한 부담과 열정, 교회 내에 제자의 수가 불어나는 것 등은 신앙의 야성을 회복할 때 자동적으로 맺히는 열매”라고 김원기 목사는 지적하였다.

16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오면서 헬로쉽교회 교우들에게도 많은 경험들이 축적되었고, 여러 노하우들이 쌓였다. 또한 각가지 은사들도 발견되고 다양한 사역에서 사용되고 있다. 신앙에 유익한 지식들도 많이 늘어났다. 그런데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는 첫 날,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고 김원기 목사는 경고하였다. 지식 자체는 분명 좋



은 것이며, 더 많은 지식을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지식이 자신을 세우기 위해 사용된다면, 그것은 남을 판단하는 도구로 쓰일 뿐이다. 결과적으로 다른 성도를 해치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다. 반면, 사랑을 가지고 남을 위하여 지식을 사용한다면 다른 사람을 세우는 바른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더더욱 “헬로쉽교회를 시작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김원기 목사는 권면하였다. 우리가 쌓은 지식도 영혼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면 다른 성도들을 해칠 뿐이다.

김원기 목사는 목회 칼럼을 통해 이번 새벽기도회 기간 동안 특별히 ‘중보기도’에 힘쓸 것을 부탁하였다. 개인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당연한 일이지만, 교회가 건강하게 바로 설 때 나의 신앙도 바르게 설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교회와 교역자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부활절 이후 이어지는 ‘새생명축제’에서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헬로쉽교회가 되자.

이번 새벽기도회에는 아침식사로 따뜻한 국밥이 준비되고 있다.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출근

하는 많은 교우들이 추운 바람을 가르며 돌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국밥은 배를 따뜻하게 그리고 든든하게 채워준다. 비록 주머니에 챙겨가던 달걀 두 개가 없어서 허전하기는 하지만.

“You Haven't Seen Nothing Yet”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며.

<오장석>



중고등부 수양회의 은혜가 평생의 은혜로

Mina Choi (9학년)

저는 6학년 때, 처음으로 참석한 티모시 수양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몇 차례 넘어지기도 하였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섰고 더 강하게 성장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 발전하였고, 저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가끔 하나님을 다른 곳으로 밀쳐버리고, 그 분의 존재를 느끼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 어느때보다도 하나님을 더 가깝게 느끼고 있고, 하나님을 섬길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저의 믿음과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저는 세례를 받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저는 삶의 공허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어떤 일들을 하고서는 나중에 내가 왜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일을 했는지, 의아해하기도 했습니다. 친구때문에,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 교회에 갈 뿐이었습니다. 어떤 것도 저에게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하지 못했습니다. 삶의 목적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무엇인가가 빠졌는데, 무엇이 빠졌는지 확실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빈 부분을 친구, 가족, 다른 세상적인 물건들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저는 한밤중에 일어나 우리가 왜 살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찾고자 애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지 확신하지 못하면서도,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저는 크리스천이었지만, 그것은 부모님이 크리스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것도 저에

게는 실제로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의미가 없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었고,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수양회에서 모든 것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양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고 있던 일들이 얼마나 잘못됐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를 짓고 있었

는지, 내 삶이 얼마나 무의미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룻밤만에 일어난 그런 일은 아니었지만, 제 삶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아야하는지 보았고, 하나님을 더 선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이며, 그 분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계속 지금까지처럼 산다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될 것을 알았고, 그것은 절대로 즐겁게 들리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저는 하나님을 제 삶에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악하고 죄가 많았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저를 위해 보내셔서, 저의 죄를 영원히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런 조건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용서해주시킵니다.

수양회를 다녀오고 나서, 저는 정말로 행복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마음의 깊은 곳에서 열정의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저는 더이상 허전함을 느끼지 않았고, 관심없다는 듯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가야하기 때문이 아니라, 가고 싶기 때문에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내 삶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묻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지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계시다는 것을 그냥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분이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



Henry Hong

는 것, 그리고 그때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기쁨에 넘쳤고,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미끄러져 떨어지는 어려운 시간들이 많이 있었고, 하나님을 두 번째나, 세 번째로 우선순위를 밀어놓을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저는 다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기도로 하나님을 붙들고 저는 사탄을 이겨서 밀쳐버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유혹에 빠질 때가 많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용서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압니다. 구체적으로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지만,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무엇을 해야하는지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더 이상 불확실한 것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



Julian Lee

섬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보여주셨고, 제가 자라서 바른 길로 가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것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축복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주셔서, 저는 영원히 그 분을 섬기며, 그 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고자 합니다.

I accepted Jesus when I was in 6th grade during my first Timothy retreat. From that time and now I have fallen a few times, but more importantly, I got back up and grew stronger. My bond with God has gotten better, and I have gotten closer to Him. Sometimes I would push God away, and I wasn't able to feel his presence. However, now I feel closer than I have before and I am ready to serve him. I want to be



Melanie Kim

하면 하나님께서 뚫고 지나갈 수 있게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동행은 저에게 축복이었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가끔은 흔들리고, 가끔은 약하고, 가끔은 강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있고, 그 분이 도와주실 것을 압니다. 나만을 위해 예비하신 길로 하나님께서는 저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저는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 분 안에서 매일 강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매일 믿음이 자라고, 더욱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것입니다. 수양회에서, 선교지에서,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Samuel Yu

baptized to show my faith in God and to show that I have accepted him.

Before accepting God, although I was young, I could still feel emptiness in my life. I would do certain things but later wonder why, there was no point to it. I would also only go to church because of my friends, and because my parents made me. I had no motivation to do anything, I was missing a purpose. Everything seemed pointless, something was missing, but I wasn't sure what was missing. I tried filling that empty void with friends, family, and other worldly possessions. I would lay awake at night trying to figure out why we were living. I was constantly questioning God, though I wasn't even sure if he existed. I was a Christian, but only because my parents were. Nothing seemed real to me, everything had no meaning. My desires were worldly, and I had no idea what to make of my life.

However, things began to change when I went to my first retreat. As I listened to the messages, it began to dawn upon me about how wrong what I was doing was. I began to realize how much I was sinning, and how pointless my life really was. Although it wasn't just an overnight thing, where I instantly saw what the meaning of my life was, I began to more clearly see God. I began to understand that we were born to serve him and that without him, we are nothing. I saw that if I continued to live my life the same way, I would go to suffer eternally in hell, and that did not sound pleasant at all. Through the speakers and praying, I accepted God into my life. I saw how that even though I am so evil and sinful, God chose to send his only Son to the die on the cross so he could forever take away our sin. It hit me that even though we are nothing, God loves us unconditionally anyways, and will always forgive us.

After the retreat, I came home truly happy. There was a passion in my heart, a fire burning deep inside my heart.




Mina Choi

When I did things, I no longer felt empty or cold. I went to church because I wanted to, not because I had to. I no longer questioned God about our purpose in life, about what happened when we died. I no longer wondered if he was real or not. I just knew he was, I could feel his presence. I knew that I would go to heaven, and until then I would spend my life happily serving God. I was joyful, and at peace. There were many hard times, where I began to slip, and made God my number two or three priority, but I was able to climb back up. With prayer, accountability, and God, I was able to beat the devil, and push him aside. It isn't easy, and many times I do fall into temptation, but I know God will forgive, and help me. I'm not sure what specifically is the purpose of my life, but I feel confident, I know that God will guide my in the right direction and tell me what to do. I know longer fear the unknown, because I know God is there to help me through it.



Christina Courtright

My spiritual walk with God has been a blessing, an amazing experience. Sometimes it was shaky, sometimes weak, and sometimes strong. But I know I can hold on, and I know God will help me do so. He is leading me on a path the he designed for me, and I can't wait find out where it leads me. I will continue to walk with the Lord, and I know everyday I will grow stronger in Him. I will grow more faithful everyday, and more Christ-like everyday. I can't wait to serve him in retreats, missions, and just everyday life. God has shown me so much and helped me grow and go in the right direction. I am so thankful to know him, and I know I am so blessed. I know that God loves me so much, so unconditionally, and I will forever continue to serve him and praise his name. 

오늘도 열차는 쉬지 않고 달린다

이 다윗, 안나 선교사

오늘은 2006년 12월 **일, 낮 12시 42분, 저는 지금 C국 남쪽의 조그만 지방도시로 가는 열차 안에서 복음의 동역자 되신 여러분께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약 3주 전 오늘 가는 지역 가정교회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 선생님과 교통(교제)을 하고 싶습니다. 방문하여 주십시오! 저는 며칠간 기도 끝에 방문하기로 결정을 하고 오늘 기차로 17시간이 되는 그 지역을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다

이렇게 C국 가정교회의 요청으로 그들과의 교제 및 가르침을 위해 방문하는 것을, 우리 사역자들의 통속적인 언어로 출장을 간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출장을 매달 3-4번 정도 나갑니다.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한 지역에 3-4일 정도 체류하며, 그들과 교통하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 신학 훈련 및 제자훈련을 합니다. 현재 저와 함께 교제하며 가르침을 받고 있는 지역은 남쪽에 네 지역, 북쪽에 한 지역이 있습니다. 제일 먼 지역은 기차로 43시간, 버스로 2시간 총 45시간이 소요되며, 가장 가까운 지역이 기차로 5시간, 버스로 1시간 약 6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니 저는 매달 약 20일 정도는 외부의 다른 지역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좋은 건강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저의 나그네 같은 삶의 모습을 보면서 가끔 젊은 후배 선교사들이 저의 건강을 많이 염려합니다. 이 선생님! 건강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게 다니시는 것 아니세요? 그전에 미국에 있을 때는 신경이 예민한 편이라 잠을 떠나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러니 먹는 것도 자연적으로 부실하게 되고... 그런데 선교사로 나온 후에는 흔들리는 기차 안이나, 버스 안이나, 냄새 나는 농촌에서든지 잘 자고 그리고 무슨 음식(밥, 개구리, 자라 요리 등)이든 잘 먹고 잘 소화를 시킵니다. "우리의 연약한 체질을 아시고 바꿔주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전 가끔 후배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하루 하루 하나님이 좋은 건강을 주실 때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하자.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열심히 달려가자. 오늘도 나의 적은 섬김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안타까운 양

오늘도 저는 기차를 타고 가면서 마주 앉아 있는 약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한 자매님께 평소의 습관대로 말을 붙입니다. "자매님! 어디까지 가세요? 어디 사세요? 왜 가시는 데요? 금년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등.. 그러다가 이분의 나이에 대한 대답 중 저는 전도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 자매님의 외모로 보기에는 저보다 약 4-5년 정도 위처럼 보였는데, 실제 나이를 들으니 저보다 2살이나 아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실제 나이를 밝혔더니, 이분이 놀라면서 자기가 보기에는 40대 후반(약간 과장?)처럼 보인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기차 안에서 대담하게 전도를

저는 그 자매님에게 이렇게 젊게 사는 비결이 있다고 하면서 조심스럽게(만일 이분이 날 고발하면 난 끝입니다.) 전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기독교란 종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전에 예수님에 대해 들어 보았느냐?" 등.. 이러면서 약 30분 정도 복음에 대한 소개를 하였는데, 이 자매님이 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는 자기는 공산당원이고 그러기 때문에 기독교가 좋은 종교이고 예수님도 좋은 사람인 것은 알겠는데, 당원인 자기는 다른 종교를 가

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자매님의 대답을 듣고 나서 저의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웠습니다. 십자가 상에서 안타까운 시선으로 우리들을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았습니다. 주여!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한 마리의 양을 긍휼히 보시옵소서.

C국의 공산 당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C국에는 약 6천 8백만에(전체인구 약 5%) 가까운 공산당원들이 있습니다. 공산당원들은 공산당 자체가 하나의 종교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단체에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C국이 개방된 후에도 많은 C국의 청년들과 지식층들이 공산당의 입당을 자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상적인 문제 때문에 자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들의 출세와 명예를 위해서입니다. 요즘도 이곳 선교사들의 사역을 통해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많은 젊은이들이 믿음의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당이나? 공산당이나?" 6천 8백만의 당원들과 믿음의 갈등을 겪고 있는 C국의 젊은이들을 위해 무릎을 꿇어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인생 오직 주 예수만을 위하여

제가 처음 선교에 대한 소명을 받은 것은 제 나이 42살이던 1989년 남미 파라과이 달기선교에서였습니다. 그 후 약 5년간의 하나님의 훈련기간을 마친 후, 47살에 선교지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2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제는 C국 사역지에서 경력이나 사역면에서 선배 아닌 선배의 대우를 조금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C국 사역에 대한 저의 소문이 어떻게 났는지, 저도 잘 알지 못하는 지역(오늘 가는 지역과 같은)에서도 가끔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그들이 저를 찾는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제와 서로의 배움을 나누자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쓰는 동안 저의 눈가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 고입니다. 지난 12년간 받음도 부정확한, 제가 생각하기에도 어설프기만 한 C국어로(C국 성도들은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C국 각지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많은 일들을 바라보며, 이 모두가 주님의 은혜요, 또한 여러 동역자 여러 분들의 사랑과 섬김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2007년에는 제가 미국 나이로 59세, 이곳 C국나이로는 60이 됩니다. 저도 때로는 믿기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끔 이곳 후배 선교사들이 저의 은퇴 계획에 대해 질문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 저는 후배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에게 은퇴란 단어가 없는 거야." 우리들에게 생명이 있는 한 말기신 사명에 열심히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지" 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들의 대선배 선교사인 사도 바울 선생의 고백을 다시 한 번 생각해봅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나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 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우리가 선교사로 헌신하여 이 곳 선교지로 올 때는 세상적인 욕심 다 버리고, 우리의 목숨까지도 이곳에 함께 할려는 각오로 오지 않았는가? 그런데 선교사가 무슨 은퇴 계획! 사도 바울 선생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위해 나의 목숨까지도 이곳에 바쳐야지." 저는 가끔 후배 선교사들에게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 곳 C국 땅에서 생명을 마친다면 매장을 하지 말고 화장하여 나의 육신을 나의 발자취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이곳 강 물에 뿌려달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도 달리는 기차 안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하고 부족한 종입니다. 그러나 제 생명을 드려 주님을 사랑하고 죽도록 충성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무익한 종을 주의 손길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주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C국 복음의 동역자되신 여러분!

다시 한 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동역자된 저희 부부가 지치지 않고, 낙망치 않고, 열심히 말기신 사명에 충성하고, 하나님이 말기신 은혜의 복음증거를 위해 끝까지 달려 갈 길을 잘 달려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과 격려와 사랑으로 함께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 하나님 은혜로 다시 밟은 땅

김용선 전도사

저녁 늦은 시간 “따르릉” 전화 벨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어머니의 기쁜 목소리를 들으며 전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전화 속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말씀은 “교회에서 너를 초청한다고 하는데 시간이 가느냐구 하시면서 간증을 해야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전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할렐루야!로 답했습니다.

세가지 기도제목의 응답

신학교에 다니고 있는 저는 방학을 앞두고 다니엘 21일 기도를 통해 저는 원하는 가격으로 집매매가 이루어지고, 아들 대학입학이 원하는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방학 중 미국에 보내주세요 등의 기도제목을 놓고 기도중이었는데, 심령 가운데 미국에 갈 일이 있다라는 부드럽고 세밀한 음성을 듣고 언제 어떤 방법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대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장막의 문제가 해결되면 정리하고 갈 수 있겠구나 나름대로 생각 중이었는데, 막연하게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미국에 여행이던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던지 간에 무조건 보내주세요. 어찌 생각하면 건방지기 짝이 없는 기도를 드렸는데, 다니엘 기도가 끝나고 며칠 뒤에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어떻게 살아계신 아버지가 역사하심을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입이 다물어지질 않습니다.

2006년이 가기 전에 집이 매매가 되어 정리할 수 있도록 기도드렸는데, 2006년 1월 31일 저녁 8시에 매매가 되었으니 그 기도도 응답하셨고, 아들 대학합격도 응답하셨고, 작은 신음조차도 응답하지 않은 것이 없으신 멧쟁이 하나님,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께 소개하려 합니다.

4년전과 지금 불자에서 성도로

제가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지가 었 그제 같은데 벌써 햇수로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2003년 10월 23일 저는 남편과 함께 어머니와 아이들 고모인 버지니아 캠퍼스에서 섬기는 김혜숙 집사님의 초청으로 방문하여 여러분이 계신 이 곳에서 저는 하나님



의 자녀가 된 영광을 얻었고 거듭난 사람이 되어 헬로십교회에서 간증을 하였습니다. 혹시 4년 전의 저의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어머니께서 아무도 못 말리는 불교신자이셨기 때문에 저도 시집가서 함께 살면서 자연스럽게 절에 다녔고 불자임을 나름대로 대단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절로 인도하셨는데, 미국에서 사시면서 개종을 하셔서 서울에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 끊임없는 기도와 중보로 전도를 하시려 애쓰셨습니다.

저는 이미 왕골수 불교신자였고, 우상을 숭배하며 기도뿐이 세다는 절들을 찾아 전국을 누볐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의 전담 점집을 다니면서 갖가지 굿과 비방을 했으며 무엇 하나를 걱정하더라도 전화를 걸어 상담 후, 일을 행하는 등 웃기지도 않을 정도의 미신을 믿었습니다. 아니 따랐습니다.

제가 잘 아는 동네 언니들이 교회 잘다니는 것을 절로 인도했으며, 성경이고 십자가등을 갖다 버리라고 호통도 쳤으며 교회다니는 사람들을 적대시하며 알게 모르게 핍박을 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무식이 용감이라더니 어떻게 이렇듯 무지했을까요. 점점 제가 하는 꼬라지가 가관도 아니고 한국에서는 도저히 구제불능인지 하나님께서는 미국으로까지 인도하셔서 어머니와 고모의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게끔 작전을 짜셨습니다. 어머니와 고

모를 통해서 말입니다. 마음이 나름대로 불자라고 너그럽고 자비하다고 하던 저를 철저히 깨부수는 작업을 하셨으며 듣기조차 거부했던 복음을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저에게 전하는 겁니다. 맛있는거 대접하겠다고 음식을 먹이면서 복음을 전하고 선물을 주면서 막 꼬시는 겁니다. 원래 한국사람은 뇌물에 약하지만 저는 이미 무장을 하고 서울에서 왔기때문에 그 정도의 전도로는 꿈쩍도 하지 않았는데, 뉴라이프 웨스티벌과 TD (프레스 디아스) 13기를 통하여 저의 옛모습은 자취를 감추었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제 2의 고향입니다. 제게는 말입니다.

국제 전화를 통하여, 김원기 목사님 태일을 통하여 전도를 하셨지만, 저는 말로만 “네. 네. 교회다니게요.” 건성으로 대답했고 “어머님께서나 계속 예수 믿으세요. 저는 제 인생이 있는겁니다.”하며 그야말로 콧방귀도 안 뀌었던 저를 천하보다 한 영혼의 구원이 귀하다고 저를 자녀 삼아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중보기도의 결실

저 같이 보잘것 없고, 죄 중에서 살던 저를 자녀삼아 주신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어머님과 고모, 구역식구들의 중보기도가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빛의 자녀가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어머님. 김혜숙 집사님.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전도는 가능합니다. 형제, 자매, 부모님, 이웃이 없는 분은 안계실겁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만복의 근원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어떻게 나 혼자만 믿습니까? 전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절에 다니며 미쳐있을 때도 교회다니는 언니나 친척들이 있었는데 제게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만 했을까요? 그건 천국에 가서 물어 봐야겠군요. 저는 천국백성이 되고나서 가장 먼저 변한 것은 입만 열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였는데, 약간의 수고와 약간의 시간도 못내어 전도를 못한다면 천국시민권을 받을 자격이 있을지 그것도 천국가서 물어 보겠습니다.

예수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인데 그 중간역할이 이 곳에 계신 저나 성도님들이 감당할 몫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저희는 마음의 문을 열도록 자주 두드려서 하나님께 패스하면 됩니다. 그 과정에는 시간투자, 중보기도, 약간의 물질투자도 필요하겠지요. 저는 절에 다닐 때에, 교회 다니던 집사님들도 절로 인도할 정도로, 겁도 없이 무식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고 다녔으니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멈추지않는 눈물

뉴라이프 웨스티발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의 얼굴 표정을 보았고, LPTD 13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어머님이나 고모는 제게 약간의 투자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두를 투자한 것입니다. 당신들이 믿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뜨거운 내 안의 자아가 회개를 하면서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고 사랑의 마음이 넘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많은 눈물이 내 안에 있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그냥 기쁨이 마구 마구 넘쳤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저는 벽찬 가슴을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 뜨거움을 누구에게 전할까 만나는 사람마다 수퍼마켓, 물품배달 아줌마, 세탁소 등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전하였고, 교회다니다가 실족한 사람들에게 다시금 도전을 일으키게 하였으며 눈만 뜨면 누구를 전도할까 생각하는 생활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만남을 통하여 많은 것을 체험하고 나서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들어갈 때면 앞자리에 앉고자 욕심도 내고, 자녀삼아 주신 것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려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저의 기도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였습니다. 미국에서 성령세례를 받을 때 주신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 말씀읽을 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 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루 하루가 간증이 되고 주님과 만나는 체험이 되는 생활이 시작되면서 나의 모든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수요일예배, 구역예배, 금요철야예배, 주일예배, 새벽기도등 예배란 예배는 모두 참석하고 주시는 말씀이 어찌나 달콤하고 기대되는지요. 그 맛이란 정말 끝내줍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감동이 되어 울고, 우리를 주님께서 불쌍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에서 대성통곡하며 울었고, 요셉이 자기 형제와 아버지를 만나는 대목에선 콧물 눈물 흘리며 말씀을 읽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미신과 우상의 앞잡이였던 제가 예수파가 되었으니 말로만 듣던 영적전쟁은 심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우상숭배가 예배로 할렐루야!

친하게 지내던 점쟁이들, 스님들, 불자들이 모두들 한마디씩 던진 말이 저에게 돌이 되어 날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긴 게임이었으므로 전 담대하게 절대믿음, 절

대충성, 절대순종의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많은 기도의 동역자와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우상숭배의 표적들을 모두 제거했으며 스님, 불자들과의 인연도 정리되고, 주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제사 등 명절 때의 행사들도 모두 주님께 찬양드리는데 예배로 바뀌었고, 모든 생활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친정언니나 이웃, 친구들도 “어떻게 저렇게 미칠 수가 있지” 의아해하며 머리를 흔들었고, 만나는 사람마다 “할렐루야”하고 인사하니 저의 별명이 할렐루야가 되었습니다. 저의 아들이 민수인데 모두들 변한 나의 모습에 “민수엄마는 절에 다니며 불교 믿었을 때가 좋고 편안했는데 지금은 어려운데봐” 쑥덕거렸지만, 상황이 어려워도 항상 기뻐하며 웃었고 감사함으로(얼굴은 해같이 빛났다고 합니다) 지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과 같은 영광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04년 1월 1일 새벽에 꿈을 꾸었는데 극장의 스크린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스크린에 자막을 쓰셨는데 읽어보니 말씀이었습니다. 꿈 속에서 저는 큰소리로 “내가 반드시 너를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하고 번성케하리라(히 6:14)”는 말씀을 읽으며 저는 일어나 성경을 찾으며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생생하게 귀에서 울리는 말씀에 잠을 이룰 수 없는 벅찬 가슴을 안고 어떠한 고난과 시련도 두렵지 않다는 확신을 했으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새해 첫 날 주신 말씀에 감격해하고 더욱 영적으로 많은 복을 받는 새해를 기대하며 무식할 정도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에 앉으면 옆자리에 앉은 분께 예수님을 전했고, 난 불교신자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나도 왕년에는 불자였지만 지금은 크리스천임을 밝히며 짧게 간증도 하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니 가정경제도 말이 아닌데 나도 함께 경제전선에 나서서 돈을 벌어야지”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셨는지 사업장까지도 어려워져, 결국 저는 좀 더 가까이 주님께 매달려 기도할 수 밖에 없었고, 주님과 긴밀한 대화를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명숙이를 잡아라” 잡힌 명숙이 가족

제게 일어난 믿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지면 관세상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오직 주께 매여 기도생활이 전부가 되고 전도가 나의 직업이 되버린 순간 저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새벽녘,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꿈 속에 오셔서 간단하고 또렷한 음성으로 “명숙이를 잡아라”하시며 제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명숙이를 잡아라” “명숙이요? 제가 아는 명숙이요?” 제가 아는 명숙이는 저와 함께 절에 다니며 우상에 절하고 점집을 내 집 드나들 듯 하던 이웃에 사는 동생이었습니다.

다. 전 잠에서 깨어 ‘그런데 왜 나더러 명숙이를 잡으라는 말씀이지? 어디 도망가나? 뭘 잡으라는 것이지?’라는 여러가지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날이 밝을 때를 기다렸습니다.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는 동태를 살피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할말이 없어 “명숙아 별일없니?” “응. 별일없어.” “그래, 다행이네. 정말 별일없니?” “그래, 별일없어! 왜 그런데, 언니?” “명숙아, 언니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를 잡아라 명령하시는데 너 혹시 도망가니? 뭘 잡으라는 것인지 몰라서 그래.”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전했더니 갑자기 소리를 썩 지르며 “언니!! 예수쟁이가 되어가지구 와서 무슨 헛소리야. 앞으로 나한테 전화도 하지말고, 만나도 아는 체도 하지마!!”하면서 전화를 탁 끊는 겁니다. 순간 저는기가 막혔습니다. 예전 같으면 다시 전화를 걸어 “야!! 내가 예수 믿는데 너가 뭐 세금 낸 일 있니? 보태줬니? 너 전화 매너가 그게 뭐니? 싸가지가 더럽게 없네”라며 욕을 했을 터인데, 분냄과 성냄대신 ‘무슨 일이 있구나’하는 직감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나 명숙이는 자기 말만 열심히 “언니나 예수 믿고 천당가. 나한테는 예수 얘기 꺼내지도 마” 하면서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답답해진 저는 명숙이랑 친하게 지내는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 이야기를 듣고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저랑 함께 굶고하고 무당과 친하게 지냈는데, 점집의 무당언니와 늘 함께 지내던데, 그만 귀신이 내려 내림굿을 하여 명숙이도 무당이 된다는 겁니다. 내일이면 내림굿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명숙이는 무당이 되는건데 난 어떻게 할 줄 몰라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일이면 내림굿한다는데 어떻게 잡으라는 겁니까? 미리 알려주시면 더 좋았을텐데 시간이 급합니다. 모든 것을 저에게 비밀로 알려주지도 않고 있는데 어떻게 잡아요. 내림굿판에 가서 영망으로 만들어 놓을까요? 어디서 하는지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주님 지혜를 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밖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더욱 맘이 답답해졌습니다.

다시 용기를 내어 명숙이에게 전화를 걸어 진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맘으로 예수님을 전하는데, 명숙이는 차분한 목소리로 “언니! 이미 늦었어. 내 길은 이 길이야. 내 팔자인걸 어떻게. 그러니 언니나 믿음생활 잘해요.”하며 자포자기 인생을 살려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숙아! 약해지면 안되. 귀신에게 속지마.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따위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명숙아 정신 차려. 귀신 놀음에 속지마. 언니 말 따라해. 영접기도 해줄게.” 뚜뚜뚜... 이미 명숙이는 전화를 끊었는데 나 혼자 부르짖으며 울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작두를 타고 기를 뽑으며 방울을 흔들며 델 명숙이의 모습에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내 탓입니다. 난 이렇게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 오자마자 명숙이를

전도했어야 했는데... 주님, 용서해 주세요. 모두가 저의 잘못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탄은 그런 식으로 가만두지 않았고, 난 그런 사탄들을 대적하여 명숙이에게서 떠나도록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음을 믿었고, 이루어질 줄 믿고 회개하며 기도와 간구로 울부짖었습니다.

장사도 처음 개업발이 중요하다는데, 명숙이의 점집도 처음 신을 받았을때 용하다며 제가 아는 사람들 모두가 점을 보고 왔더군요. 예전의 저라면 제일 먼저 찾아갔을테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며 제가 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고, 사명감에 오히려 가슴이 더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귀신의 점발이 힘이 없어져 문을 닫게 해 달라는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한 달 만에 응답하셨습니다. 저는 기도으로써 명숙이를 잡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점집이 손님이 없어서 그만 문을 닫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 귀신을 받으면 평생 헤어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주님께서 명숙이를 자녀삼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파르릉!! 전화연락도 끊고 아는체도 안하던 명숙이가 전화를 걸어와 “언니!! 혹시 나 망하게, 문 닫게 기도한 것 아냐?” 화를 내며 따지는 겁니다. 난 태연하게 “왜? 너 망했니? 문 닫았니?” 물으며 “너를 위해 기도했지만 망하게 기도한게 아냐!!”라고 했습니다. “그게 그거지 뭐

야!” 명숙이는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명숙아. 이왕 이렇게 된 거 딱 한 번이라도 좋으니 교회 한 번 가보자. 예수님 믿어봐. 얼마나 좋은데..”

할렐루야! 그런 명숙이가 점차적으로 변하면서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며 관심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화를 자주하면서 “언니, 나 위해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묻는 겁니다. 지금은 남대문에서 악세서리 장사를 하면서 절도 다니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은 이미 정해진 약속입니다.

그런 중에 남편이 다시 미국을 방문하여 LPTD를 통하여 천국백성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고, 우리 가정에 어머니와 고모의 기도로 완전구원이라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를 통하여 저를 무릎꿇고 기도하게 하였고 더 가까이 주님께 향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고난의 터널이 지름길

고난의 터널 속에 있는 것은 결국 지름길임을 알게 하였고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기쁨과 찬송이 넘쳤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란 말씀에 어떤 조롱과 멸시도 대수롭지 않았고 평안함 속에서 긍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 

썸머 아카데미

대상: 현 6학년 - 9학년까지

기간: session I : 6/25 - 7/13 (3주)

session II : 7/16 - 8/3 (3주)

시간: 8:30 AM ~ 3:00 PM

과목: 예배, 영어, 수학, 과학, Music & Arts, 성경공부, Field Trip, SAT

* 실력있는 크리스찬 교사

담당자: 전상희 전도사 (301-444-0250)

김혜정 사모



Elizabeth May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YMAM 캐시미어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Elizabeth May가 겨울동안 미국을 방문하였다. 2월 25일 예배시간에 May 선교사의 간증을 들은 뒤, 성도와 교역자가 함께 선교사를 위해 기도했다.


올해 남부아시아에서는 놀랄만큼 많은 숫자의 무슬림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렸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포함하여 환상, 꿈등을 통해서 무슬림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셨다. 몇몇 크리스천의 기도로 장례식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난 뒤, 그곳에 있던 120명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이러한 일들이 비단 남부아시아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아니 더 큰 하나님을 향한 움직임이 중부아시아, 중동, 북아프리카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다.

These are exciting days to be involved in missions! We are seeing the Kingdom of God expand on the earth like never before! A record number of Muslims are coming to know God through miracles and dreams & visions, because Christians around the world are praying.

This year, among Muslims in South Asia, we have seen several people give their lives to God. We have seen God draw people to Himself through miracles this year. In one particular village, an elderly man was quite sick. His family took him from their village to the hospital in the main city, three hours away. While he was in the hospital, he died and the hospital issued a death certificate. A few days later, the family brought his body back to the village for burial. Some Christians who attended the funeral, decided to pray for him. The man was resurrected and 120 families decided to give their lives to Jesus. They all worship together in a house church now and spread the Gospel message in the surrounding areas despite heavy persecution they face.

In another village, 2 men from America who were

only visiting the country for a week, went to see the village leader. When they arrived, the village leader recognized them and explained that one month before, during the holy month of Ramadan, he dreamt that he met the 2 men. They were even wearing the same clothes. In the dream, Allah told him to listen to these men because they were bringing truth and a revelation. After the men explained the Gospel to him, this village leader gave his life to Jesus. This man has influence over 30,000-40,000 people. The majority of Muslims who come to Jesus, get a revelation of Him in the holy month of Ramadan. On the night of prayer, Muslims stay up all night and ask Allah to give them a revelation of who He is. Many people testify to getting a revelation of Jesus either in a dream or a vision. Please remember to pray for Muslims during the holy month of Ramazan.

These incidences aren't limited to only South Asia. We are also seeing similar & greater moves of God throughout Central Asia,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lease pray for the Muslim World. Please pray for the countries and situations we see and hear about in the news. 

제 55차 새가족반 (1월 28일)



(윗줄 왼쪽부터) 정아름, 민경록, 민지숙, 김정희, 엄호선, 이난정, 전정선, 김성숙 전도사, 이경화, 김경훈, 유종남
(아래줄 왼쪽부터) 김정희, 김우성 목사, 김원기 목사, 송종근, 이강일, 한승훈 목사



지혜로운 삶의 복



유선명 목사

어느 순간 누군가가 다가와 “무엇을 원하는가?” 묻는다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바로 답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평소에 자신이 무엇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을 때, 솔로몬은 즉각적으로 ‘지혜’를 구했다. 그것은 평소 솔로몬이 지혜를 사모했다는 의미이다. 본인의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늘 지혜로워지기를 항상 간구했기 때문이다. “마음속에 사무치는 정도에 비례하여 빠르게 대답이 나온다”고 유선명 목사는 지적하였다.

제 6회 바이블 아카데미가 지난 2월 9일부터 11일까지

지 메릴랜드 캠퍼스에서 있었다. 시카고 한인교회를 섬기는 유선명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지혜로운 삶이 어떠한 것인지 잠언을 바탕으로 공부하였다.

잠언은 문학전집에 견주어 말할 수 있다. 여러 작가들의 여러 작품들을 하나로 정리한 문학전집과 같이 잠언도 많은 잠언들을 모은 여러 선집들을 다시 하나로 정리한 책이다.

잠언은 ‘시’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데, 이는 기억에 오래 남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아름다운 시 한 구절이 가슴에 새겨지면 평생토록 기억에 남는 이치와 같다. 이렇듯 잠언은 간결하면서도 삶에서 쉽게 경험되는, 그러면서도 인생을 심도 있게 관찰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잠언은 개개의 구절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각각의 구절을 따로 떼어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매력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다. 잠언에서 묘사되고 있는 상황들은 보편적인 것을 말하지 않는다. 마치 어느 드라마의 한 장면을 잘라내어 특정한 상황을 세밀하게 보여주는 것과 같다. 따라서 각각의 구절들을 따로 떼어내어 생활에 적용하되 아무 때나 적용해서는 안 된다.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 특정한 상황이 무엇인지 바로 파악하는 것이 말씀을 바로 해석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

잠언은 크게 2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장부터 9장까지가 한 부분으로 ‘강의’와 ‘지혜시’를 담고 있다. ‘강의’는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요소를 지니고 있다.

| 선집 (collections) | 저자/편찬자 | 특징 | 중심주제 | 비고 |
|------------------|------------------|----------------------------|---------------|------------------------|
| 1-9 장 | “솔로몬의 잠언” (1:1) | 연속적인 강의와 지혜시 | 지혜의 소중함 | 10 개의 강의 “내 아들이야” |
| 10:1-22:16 | “솔로몬의 잠언” (10:1) | 짧은 잠언들 대조적 잠언 (특히 10-15 장) | 의인과 악인 현인과 바보 | |
| 22:17-24:22 | 현인들의 잠언록 | | | 이집트 지혜문학과 유사함 |
| 24:23-34 | 현인들의 잠언록 | | | |
| 25-29 장 | “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찬” | | | 가장 유기적으로 통합된 선집 |
| 30 장 | 아굴의 잠언 | | | 수수께끼 형식 숫자 잠언 |
| 31:1-9 | 르무엘 왕의 어머니 | | 동치자의 자세 | |
| 31:10-31 | 부명 | 알파벳 시 | 이상적인 여인상 | 지혜를 향한 여정의 완성: 아름다운 가정 |

잠언의 골격과 세부 구조

| 단락 | 장절 | 대표적 주제 |
|-------|---------|-------------------|
| 서론 | 1:1-7 | 지혜: 성공과 행복의 비결 |
| 강의 1 | 1:8-19 | 불량한 친구를 멀리하라 |
| 지혜시 | 1:20-33 | 후회없는 인생 |
| 강의 2 | 2:1-22 | 지혜로 나아가는 길 |
| 강의 3 | 3:1-12 | 생명을 주는 지혜 |
| 지혜시 | 3:13-20 | 지혜의 찬미 |
| 강의 4 | 3:21-35 | 선한 이웃이 되라 |
| 강의 5 | 4:1-9 | 지혜를 불들라 |
| 강의 6 | 4:10-19 | 의인의 길, 그 빛과 영광 |
| 강의 7 | 4:20-27 | 끝은 길로 걸으라 |
| 강의 8 | 5:1-23 | 당신의 아내만 사랑하라 |
| 경구집 | 6:1-19 | 미련함과 악에 관한 짧은 경구들 |
| 강의 9 | 6:20-35 | 성적 타락의 절망 |
| 강의 10 | 7:1-27 | 음녀를 무서워하라 |
| 지혜시 | 8:1-36 | 지혜의 신성 |
| 지혜시 | 9:1-18 | 두 잔치 |

잠언 1 - 9 장의 구조 (강의와 지혜시)

첫 번째는 ‘호칭’으로, “내 아들이라”라는 말로 시작한다. 이는 듣는 사람의 관심을 집중시키며 서로의 관계를 성립, 확인하는 과정이다. 두 번째는 ‘명령’으로, 무엇을 하라 또는 하지 마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세 번째는 ‘설득’으로, 명령을 주는 동기와 명령을 따르면 얻게 되는 유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잠언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이 ‘설득’으로, 잠언을 읽는 우리의 자세는 바로 ‘설득 당하는’ 것이다. 즉, 잠언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넘어가기 원한다. 한편, ‘지혜시’는 강의의 형식을 지니고 있지 않으며, 지혜의 유익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강의’와 ‘지혜시’는 잠언의 말씀을 해석하는 원리를 제시해주고 있다. 나머지 10장부터 31장은 ‘어록’ 부분으로, 계속해서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다.

유선명 목사는 “지혜는 수준이 아니라 ‘방향’이다”라고 지적하였다. 지난날 지혜로웠다 하여 앞으로도 영원히 지혜로울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 솔로몬이 지혜를 간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뛰어난 지혜를 받은 인물이었지만, 그의 인생 말년은 성전과 왕궁을 지으며 백성들을 학대한 폭군의 모습이였다. 또한 이방의 아내와 첩을 많이 두었는데, 이는 우상숭배의 원인이 되었다. 전혀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 이처럼 지혜는 어느 한 순간에 이룩하여 평생을 누리는 업적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징은 믿음과도 동일하다. 유선명 목사는 “믿음도 수준이 아니라 ‘방향’이다”라고 재차 강조하였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일을 주시면 오늘과 같은 믿음의 하루를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지만, 환경에 따라 변하는 사람의 모습 속에서 자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현재 내가 주님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믿음’인 것이다. 지난날을 아무리 훌륭한 믿음으로 살았다 하여도 오늘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 않다면 그 순간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역설적이지만,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이 지혜가 없음을 한탄하며 끊임없이 지혜를 사모하고 갈구한다.

잠언은 사람의 성품을 두 가지로 나누어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의인과 악인,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 물론, 처해진 상황에 따라 본인의 위치가 두 극단 사이에 위치할 수 있지만, 잠언은 우리가 어떠한 방향성을 지녀야 하는지 제시해 주기 위해 두 가지의 극단을 대조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즉,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아니면 나쁜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잠언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내가 잘못된 방향에 서 있다고 판단이 되면 바른 방향으로 돌아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얻게 되는 유익을 바라며 계속 나아가야 한다.

그렇다면 왜 지혜를 추구해야 하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이다. 지식적인 앎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친밀한 관계성을 말한다. 즉, 나의 삶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아는 것이다. 또한 친밀한 관계를 통해 조금 더 정결해지고, 조금 더 의에 가깝게 다가가게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 1:7)

암송 권장구절

-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 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잠 3:18)
-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 16:32)
-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 1:7)
-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 3:5-6)
-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 16:18)
-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히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잠 12:22)
- 온량한 여는 곧 생명 나무라도 패려한 여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 15:4)
-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 22:6)
-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 15:16)
-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잠 16:8)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 9:10)

잠언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으며, 지혜의 목적인 셈이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잠 2:5)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 세상적으로 총명하고 성공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죽음 뒤에 찾아오는 영생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잠 3:18)

또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지혜롭다’는 것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고전 1:30) 지혜는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수련을 쌓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곧 ‘지혜’이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고 그와 동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라는

유혹을 이기는 방법 (사전 결정의 원칙)

1. 높은 목표(고상한 목표)가 필요하다.
2. 즐거움의 유보 (고통을 먼저 당하고 즐거움을 나중에 누리겠다.)
3. 사전 결정의 논리 (자신의 원리원칙을 미리 결정해놓고 그대로 따라 산다.)
4. 작은 축제 (어떠한 목표에 이르렀을 때, 작은 축제를 통해 즐거움을 가져라. 그렇지 않으면 지친다.)

사도 바울의 지적이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 3:5-6)

<정리: 오장석>

커버넌트 썸머캠프

대상: 만 3세 - 5학년

등록: 3월 2일 (금) 부터

기간: 5 session

1. 6월 11일 - 6월 22일

2. 6월 25일 - 7월 6일

3. 7월 9일 - 7월 20일

4. 7월 23일 - 8월 3일

5. 8월 6일 - 8월 17일

(방과 후 Extended Care 가능)

담당자: 전상희 전도사 (301-444-0250)

김혜정 사모

사울과 예수님의 만남

오장석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추며 헬라어(또는 아람어)로 소리가 났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행 9:4)

사도행전에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변하게 되는 사건이 3번 적혀 있다. 사도행전 9장에서는 누가가 사건을 요약해 놓았고, 사도행전 22장에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변호한 진술이 담겨있으며,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6장에서는 바울이 헤롯 아그립바 2세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기록이 적혀 있다. 이 3가지의 서술은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지만, 함께 묶어서 살펴보면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데 사도행전 26장 14절에 의하면,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는 말 이외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나라”라는 말이 더 있다. 무슨 의미일까? ‘가시채’는 끝에 뾰족한 쇠나 뼈를 박은 채찍으로, 발가는 소가 말을 듣지 않을 때 사용했다. 소가 반항하며 뒷발질을 하면 더욱 고통만을 받을 뿐이었다. 그런데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라”라는 말과 비슷한 표현들이 헬라 문학에서 하나의 격언처럼 사용되었는데, 그 의미는 ‘피할 수 없는 일을 저항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이다’라는 것이다. 즉, 사울을 향해 주께서 정하신 일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이리라.

사울은 하늘로부터의 음성을 듣고 무척이나 놀랐을 것이다. 다짜고짜 핍박을 하느냐 묻는 것이며, 피할 수 없다는 선언도 사울을 당황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사울의 대답은 뻔하다.

“주여, 뉘시오니이까?”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사실 더욱 놀라운 것이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대답을 들은 사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일주일을 꼬박 달려오면서 머리속으로, 마음속으로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잡겠다는 일념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울이 아니었

던가? 남달리 ‘조상의 유전에 더욱 열심’이었던, 예수를 대적하던 사울이 예수님과 만난 것이다. 비록 얼굴과 얼굴로 대면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는 실로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밝힌 후, 바로 사울에게 다음과 같이 명하신다.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행 9:6).

그런데 사도행전 26장에서는 이 순간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신 이유를 밝히셨다고 전한다.



사도 바울의 회심을 묘사한 그림.

(From the First Bible of Charles the Bald)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케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행 26: 16-18)

예수님이 사울을 ‘복음의 사도’로 부르시는 장면이다. 이것은 또한 바울이 복음을,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훗날 바울의 사도성을 놓고 비방하는 무리들을 향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갈 1:11-12)

여기서 잠시 ‘소리를 들었다는 것’에 대한 차이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한글 성경에 의하면, 사도행전 9장에서는 사울과 동행했던 무리들이 같이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반면 (7절), 사도행전 22장에서는 무리들이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9절) 기록되어 있다. 이는 헬라어 말의 미묘한 차이 때문이다.

9장 7절에서 사용된 단어의 격은 소리만 들었을 뿐, 이해하지는 못했다는 의미이다. 그에 비해 9장 4절에서는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 있어”라고 사울이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의 격은 소리를 듣고 ‘이해’했다는 의미이다. 22장 9절에서 사용된 단어의 격도 9장 4절의 것과 동일하며, 따라서 소리를 듣고 ‘이해’하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사울은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지만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른 사람의 손

에 이끌리어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된 사울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지도 않았다. 아니, 먹고 마실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단지 눈이 보이지 않아서가 아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혼동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겠다는 일념으로 달려온 사울은 자신의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핍박하고 말았다는 사실에 직면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스테반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겼던 사울,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매질로 이끌었던 지난날들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해야 하는지 말할 수 없는 죄책감에 사로잡혔을 수도 있다.

그런데 핍박의 중심에 서 있던 사울을 예수님께서 복음의 사도로 부르셨다? 이 점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훗날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이에 대해 한마디로 ‘은혜’라고 표현했다. 그렇다. ‘은혜’ 이외에는 다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다고 사울은 확신했다. 자신이 이 시점에서 복음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야 할 마땅한 이유는 전혀 없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자신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다메섹으로 들어가면 주께서 미리 정해놓은 사람이 사울의 모든 행할 것을 알려주시겠다(행 22:10)는 말씀을 의지하며 사울은 기도했을 것이다.

대제사장의 위임장을 지니고 다메섹에 들어선 사울은 더 이상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의 살기등등한 모습이 아니었다.

한편, 하나님은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아나니아 기념교회

사람에게 ‘직가(곧은 거리)’라 하는 거리에 있는 다소 사람 사울을 찾으라고 명하신다. ‘직가’라는 거리는 현재도 그 위치가 어디인지 잘 알려진 거리이다. 하지만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세기 중엽의 ‘직가’는 폭이 25미터, 길이가 1,570미터에 이르는 그야말로 큰 길이었다. 지금은 기념품 가게들과 도로들이 뒤엉켜 사람들로 붐비는 작은 길에 불과하지만.

사울이 어떠한 목적으로 다메섹에 왔는지 이미 들어 알고 있는 아나니아는 주께 불가하다고 항변하였으나, 주께서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사울을 소개하였다.

아나니아는 주의 명령을 따라 사울을 방문하여, 사울에게 안수를 베풀자 사울의 눈이 열려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아나니아는 어떠한 방식으로 세례를 베풀었을까?

모세의 율법과 랍비와 장로들의 가르침을 수집하여 주제별로 분리하여 정리한 유대 법전인 ‘미쉬나’에 따르면, 강이 아닌 물웅덩이(일명, 미크베이)를 이용하여 세례를 베풀 수 있었다. 하지만 ‘미크베이’가 되기 위해서는 대략 60갤런의 물을 담을 수 있어야 하고, 몸을 물에 잠그기 충분한 깊이(약 5피트)가 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에 대해 소개하면서 특별히 물에 대한 설명이 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요 3:23) 세례 요한이 애논을 선택한 중요한 이유 중

에 하나가 물이 많았다는 것이다. 즉, 몸을 담그기에 충분한 물이 있었다는 의미 아닐까?

또한 반드시 흐르는 물을 사용해야 했기에, ‘미크베이’는 물이 들어오는 부분과 물이 빠져나가는 부분이 마련되어 물이 흐르도록 되어 있다. 때로는 호수에서도 세례를 베풀 수 있었는데, 그것은 오직 비가 내리는 경우에 한해서였다. 비로 인하여 호수의 물이 흐르는 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침수를 하는 이유에 대해 누가는 죄를 씻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다.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행 22:16)

‘죄를 씻는다’는 것과 ‘침수’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이미 친숙한 단어였다.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마: 1:4)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행 2:38)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흐르는 물’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것일까? 그것은 ‘순결’의 상징이 되기 때문이다. 죄가 흐르는 물에 씻겨 내려가기에 세례(침례) 후에는 순결해진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많은 ‘미크베이’들은 들어오는 계단과 나가는 계단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세례(침례)를 마치고 나가는 사람이 새로 들어오는 사람으로 인해 더럽혀지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통에 익숙했던 사울과 아나니아였기에 사울도 아나니아 손에 인도되어 침례를 받았을 것이다. 비록 그 곳이 강이었는지, ‘미크베이’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세례(침례)의 방식도 점점 변해갔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윤리적인 가르침과 교회의 전례 규범에 관한 중요한 문헌인 ‘디다케’에 보면 세례의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흐르는 물에서 세례를 베푸시오. 만일 흐르는 물이 없으면 다른 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찬 물이 없으면 더운 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마에 세 번 뿌리시오.”

처해진 형편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세례를 베풀도록 변해갔다. 



쿰란에서 발견된 ‘미크베이’의 모습

땅과 함께 멸하리라

오장석

노아홍수를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하늘에서 비가 내려 홍수가 나는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의 현실에서 보는 홍수가 늘 그렇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성경에 노아홍수를 설명하면서 유난히도 ‘땅’에 대한 언급이 많다. 홍수라면 비와 관련된 ‘물’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와야 하는데, 실제로는 ‘땅’에 대한 설명이 더 많다. 노아홍수를 다루는 본문은 창세기 6장 5절부터 9장 11절까지 약 80절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서 ‘땅’에 관한 단어가 40차례나 나온다. 2구절에 한 번꼴로 나오는 셈이다.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창 6:11)

그리고 위의 구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땅’이라는 단어와 더불어 함께 등장하는 단어가 ‘패괴’라는 단어이다. 이는 타락 또는 부패했다는 의미인데, 단순히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뿐만 아니라 땅도 하나님 앞에 패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corrupt)하고 소생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 14:1)

시편 기자는 사람들이 부패하는 이유에 대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작정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맞는 말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고, 또한 자신이 무슨 기준으로 살아야 옳은지 절대적인 기준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부패할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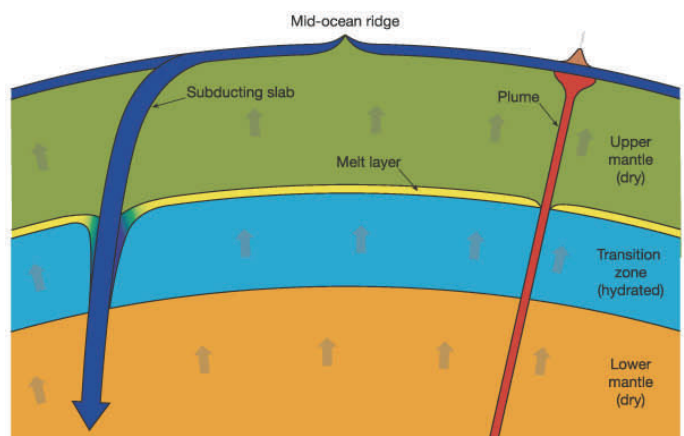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창 6:12)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런데 하나님들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겠다고 말씀하셨다. 땅과 함께? 이는 노아의 홍수가 단순히 비로 인한 홍수가 아님을 엿보게 한다. 땅이 부수어지는 엄청난 파괴의 사건이었음을 암시한다.

노아홍수의 시작을 잠시 살펴보자. “칠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육백 세 되던 해 이월 곧 그달 십 칠 일이라 그날에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사십 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창 7:10-11)

노아의 홍수는 비만 내리면서 시작되었던 것이 아니다. 그 이전에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지는 사건이 있었다. 큰 깊음의 샘들은 무엇일까? 구약성경에서 ‘물의 샘(fountains of waters)’이라는 의미로 ‘마임(mayim)’이라는 단어가 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2절에 나오는 ‘설만한 물가’가 한 예라 하겠다. 그러나 노아홍수에 사용된 큰 깊음의 샘은 ‘마임’이 아니라 ‘테홈(tehom)’이라는 단어이다. ‘테홈’은 구약에서 여러 차례 ‘바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때로는 땅 밑을 흐르는 수맥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노아홍수에서는 아마도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땅 밑을 흐르는 수맥은 단순히 지하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의 내부는 매우 높은 온도로 말미암아 상당히 건조할 것이라고 오랫동안 생각해왔다. 왜냐하면 높은 온도가 물을 증발시켜 내부로부터 제거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1997년 뉴 사이언티스트 잡지의 한 보고에 따르면, 지하의 높은 온도와 압력에도 불구하고 어떤 미네랄들은 많은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다고 한다.



지구의 결표면인 지각과 중심부인 핵 사이에 맨틀이 존재한다.

지구의 표면으로부터 평균 25km 내부까지는 딱딱한 지각인 반면, 지구의 핵은 표면으로부터 2,900km에 달하는 거리에 있다. 그 가운데 ‘맨틀(Mantle)’이 자리잡고 있다. 그런데 위쪽 맨틀과 아래쪽 맨틀 사이에 명백히 ‘전이지역(transition zone)’이 있으며 그 전이지역은 “흠뻑 젖어 있다(sopping wet)”고 기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이 맨틀 전이지역에 저장되어 있을까? 전문가에 따라 견해가 다르기는 하지만, 현재 지구의 바다에 있는 모든 물의 양에 적게는 10배, 많게는 30배에 이르도록 많은 물이 저장되어 있을 것이라 한다!

또한 오늘날에 일어나는 화산 분출물의 70% 이상이 물(대부분 증기의 형태)이라는 점에서 지구 내부에 많은 물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렇듯 노아홍수는 바다와 지구 내부의 물들이 터지면서 시작되었다. 여기서 사용된 ‘터지다’는 말, ‘바카(baqa)’의 의미는 무엇일까? 구약에서 ‘바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던 다른 예를 살펴보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출 14:16)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게 홍해가 양 옆으로 갈라졌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밭의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민 16:31-32) 여기서 고라와 그 추종자들이 모세에 대항하여서 있을 때, 밭밭의 땅이 양쪽으로 갈라지며 그들과 그들의 소유를 삼킬 때 사용되었다.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인하여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인하여 위험을 당하리라” (전 10:9) 여기서 도끼로 나무를 쪼개는 것과 같은 갈라짐을 나타내는데 사용되었다.

종합하여 보면 ‘바카’라는 단어의 의미는 강력하고 빠른 갈라짐을 뜻한다. 따라서 큰 깊음의 샘이 터졌다는 말의 의미는 지구 지각에 커다란 갈라짐(아마도 지진을 동반한)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 바다와 지하에 있던 엄청난 양의 물들이 폭발적으로 요동치며 터져 나왔다는 것이다.

큰 깊음의 샘이 터지면서 시작된 노아홍수는 설상가상으로 하늘의 창이 열리면서 비가 내렸다. 아래에서도 물이 올라오고, 위에서도 물이 내려오니 피할 수 없는 홍수인 셈이다.


흥미로운 것은 비가 멈추는데 하늘의 창만이 닫혔던 것이 아니다.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창 8:2) 홍수가 큰 깊음의 샘이 터지면서 시작했던 것과 같이 비가 그치는데 있어서도 동일하게 깊음의 샘이 막히고 하늘의 창이 닫혔다. 그렇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비가 그친다 하여도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물들이 계속되어진다면 물은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과 땅에서 코로 호흡을 하는 모든 생물을 땅과 함께 멸하셨다. 이러한 점은 노아홍수 이후 무지개 약속을 하는 장면에서도 확인된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창 9:11) 단순한 홍수가 아니다.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않을 것이라 하셨다.

정리하자면 노아홍수는 단순히 비가 내려서 생긴 홍수가 아니었다. ‘큰 깊음의 샘’들이 먼저 터졌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큰 깊음의 샘 앞에 ‘모든’이라는 말이 빠져 있다. 원문에 따르면 ‘모든’ 깊음의 샘이 터졌다고 되어 있다. 모두 터졌다? 사실 우리는 그 위력을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지구의 지각 전체가 깨어지고 부수어지는 사건이었음을 보여주는 말이다. 엄청난 대격변이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전 세계적 규모의 대격변이라면 당연히 지질학적인 증거를 남겨야하지 않을까?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대격변의 흔적은 세계 어디서나 어렵지 않게 동일하게 관찰된다. 지난 일 년간 같이 살펴본 지층과 화석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지층은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이는 것이 아니다. 실험을 통하면 항상 많은 양의 흙과 물이 빠른 속도로 흐를 때 형성된다. 또는 대기 중에서 퇴적물들이 낙하할 때 빠른 속도로 형성된다. 화석 또한 시간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매몰 이후, 알맞은 온도와 압력 아래에서 형성된다. (이와 같은 증거들은 노아의 홍수를 다루면서 더 살펴볼 예정이다.) 시간이 아니라 항상 사건이다. 즉, 지구의 지각을 부수어버린 노아의 홍수의 결과인 셈이다.

오늘날 지구 표면의 80% 가량이 퇴적암으로 덮여 있다는 사실 또한 노아홍수의 규모가 전 세계적이었음을 암시해준다. (퇴적암은 입자나 돌들이 원래 있던 자리에서 이동되어져 새로운 장소에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을 말한다.) 

당신의 모든 발언에 표시를 할 필요는 없고 분명하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표현에만 표시를 하십시오.

- 긍정적인 발언의 수: _____
- 부정적인 발언의 수: _____

칸 2에는 아이가 유능하다고 반영하고 있는지 무능하다고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C (capable), NC (not capable) 로 표시하십시오.

C : “너는 유능하다”는 의미의 표현. 유능하다는 것은 아이에게 능력이 있다, 해낸다, 자격이 있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NC : “너는 유능하지 못하다”는 의미의 표현. 무능하다는 것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 해내지 못한다, 자격을 못 갖추었다, 능력이 모자람등을 뜻합니다.

- “유능하다”는 표현의 수: _____
- “무능하다는 표현의 수: _____

칸 3에는 자녀를 향한 당신의 말이 주로 부정적인 행동의 교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또는 긍정적인 행동으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평가하십시오.

N : 부정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춘 발언(교정, 비판, 명령)

P: 긍정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춘 발언(칭찬, 격려, 잘한 점을 지적하는 것)

- 부정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춘 발언의 수: _____
- 긍정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춘 발언의 수: _____

위의 각 칸에 기록된 숫자를 살펴보십시오. 이런 과정을 통해 배운 바는 무엇입니까? 모든 부모는 자녀를 향해 그 아이에 대한 부모의 관점을 보여줍니다. 부모가 부정적인 면을 반영하면, 아이는 부정적인 것을 믿어버리고 부모가 긍정적인 면을 반영하면 아이는 긍정적인 면을 믿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부정적인 면을 반영하면…,

“너, 현철이를 화나게 했구나. 현철이도 감정이 있다는 걸 너는 모르니? 참 나쁜 친구로구나”

아이는 부정적인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친구와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긍정적인 면을 반영하면…,

“현철이는 지금 굉장히 언짢아하고 있더구나. 나는 네가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을 배우리라고 믿어. 지금 네가 현철이를 도울 길이 무엇일까?”

아이는 긍정적인 면을 믿고 그 친구와 화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이 아이에게 반영하는 내용은 아이들이 스스로에 대해 믿는 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에게서 긍정적인 면이나 능력을 확인하고 그것을 반영하면 할수록 아이는 자신의 능력이나 인격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당신이 말한 부정적인 발언들을 아이의 입장에서 되돌아보십시오.

당신이 첫째 칸에 표시한 부정적인 발언들이 바로 당신에게 행해졌다고 가상해보십시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은 어떤 느낌이 들게 될 지 생각해보십시오.

둘째 칸에서 ‘무능하다’는 표현에 속한 내용을 읽으면서 당신의 자녀는 당신이 한 말 그대로 믿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아이가 무능하다고 느낄때 아이도 스스로 무능하다고 믿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합니다. 어떤 영역에서 당신은 자녀가 무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에게 익숙해있는 ‘무능하다’는 표현을 좀더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셋째 칸에서 부정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춘 발언, 특히 비판적이거나 잘못을 지적하거나 비난하는 내용을 검토하십시오. 누군가가 당신에게 이런 부정적인 발언을 했다고 가정해보십시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당신이라면 이런 말 때문에 낙담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부정적인 발언의 수효만큼 긍정적인 행동을 칭찬하고 격려한 발언이 있습니까? 당신이 아이로서 이런 긍정적인 말을 듣는다면 기분이 어떠하겠습니까?

2. 당신은 부정적인 반영을 긍정적으로 바꿈으로써 당신 자녀의 자존감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부정적인 반영을 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러한 태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음의 표를 연구하면서 위의 두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십시오.

| 부모가 자녀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이유 | 부정적인 반응에서 벗어나는 방법 |
|--|---|
| 1. 일반적으로 부모가 부정적이 되는 것은 그들의 부모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이 받아온 양육의 방식을 택하거나 정반대의 입장에서 자신의 자녀를 양육합니다. | 부정적인 반응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십시오. 본과는 어떻게 하면 부정적인 반응으로부터 벗어나는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다음 과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하도록 돕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
| 2. 때때로 부모는 아이들과 관계없는 다른 문제들 때문에 좌절하거나 평정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문제로 혼란스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분노를 자녀에게 퍼붓곤 합니다. | 부모는 자신을 좌절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래의 방법 등으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ㄱ. 가까운 친구와 함께 문제를 나누고 그에게서 조언을 구한다. ㄴ. 특정한 문제를 다른 도움 책자를 활용한다. ㄷ.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전문적인 상담을 한다. 동시에 아이에게는 당신이 어른들 문제로 긴장되어 있다고 설명하십시오. 아이에 대해 화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하십시오. |
| 3. 부모들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훈육하지 않고서 아이가 쉽게 굴때면 좌절해 버립니다. 잘못된 행위에 대해 할당한 야단을 맞지 않으면 아이는 오히려 불안감을 느끼게 되어 더욱 나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제한이 없게 되면 안정감의 욕구가 채워지지 못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훈육하는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기쁨'이 되지 못하고 짐이 되어 버립니다. | 전에 배운 '자녀 훈육의 여러 방법'의 개념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친구나 소그룹과 함께 이 과정을 실험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리의 적용뿐 아니라 각 과의 내용도 함께 나눌 수 있으며, 서로를 돕게 됩니다. 필요하면 상담을 청하십시오. |

표가 도움이 되었습니까? 아래의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부정적인 반응을 피할 수 있습니다.

1. 아이에게 당신의 필요를 말하십시오.

하나의 인간관계라는 차원에서 당신이 당신 자신의 필요를 아이에게 말할 때 아이는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엄마가 지금 당장 이 일을 해야 하거든. 이 일이 끝나는 대로 네 일에 대해 얘기를 하자꾸나”.

2. 당신이 다른 일로 화가 났거나 좌절에 빠졌을 때는 아이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당신의 마음을 전하십시오.

- ㄱ. 어떤 느낌인지를 확실히 하고
- ㄴ. 일반적인 이유를 말하고(상세한 것까지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ㄷ. 그 순간에 부모가 필요로 하는 것을 설명하십시오.

예를 들면, “지금 엄마는 ...일로 화가 나있어. 너희들과는 관계없는 일이야. 그러니 오늘 오후에는 조용히 놀도록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 말을 들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조용한 놀이 계획을 짜는 등 구체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3. 아이의 행동을 그저 지적하지만 말고 행동을 취하십시오.

어떤 부모는 계속 참으려고 한 나머지 결정적으로 교정이 필요한 행동마저도 안하곤 합니다. 그러나 결국 부모는 화가 나서 비판적이거나 조롱의 말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아이의 자존감을 해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첫번의 적절한 때에 교정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4. 아이에 대해 현실감있는 기대를 가지십시오.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바로 이해하십시오. 아이는 아직 배워가는 자이고 가르침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훈육의 첫 단계는 지도입니다. 아이에게 시간을 내어 식사예절을 가르쳐준 적이 없다면 그 면에서의 기대를 갖지 말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가르치십시오. 장난감을 정리하는 요령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준 적이 없었다면 그 일을 잘 해내리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완전주의자가 되지 말고 아이를 현실감있게 대하십시오.

5. 아이를 통제하려는 본능을 떨쳐버리십시오.

아이가 스스로 자랄 수 있도록 자유를 허락해 주십시오. 훈육의 목표는 아이 스스로 행하는 자기 통제(self control)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훌륭한 양육은 통제력을 점차적으로 아이에게 넘겨주는 작업을 잘 해내는 것입니다.

6.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훈련을 하십시오.

아이에게서 긍정적인 면을 찾고 그것을 아이에게 표현하십시오. 다음호에서 이 면에서의 기술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면을 다루어야 적절한 때도 있습니다. 이때 당신은 아이에게 진실하고 솔직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친한 친구를 대할 때와 같은 사랑으로(동일한 선택제와 적절한 때에) 대해야 합니다.

3. 평가

당신의 일반적인 자세를 아래의 수치에 표시해보십시오

이따금 당신이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러한 부정적인 반응을 하게 되는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 나는 어려서부터 부정적인 태도를 배워왔다. ()
- 이따금 나는 다른 일로 화가 났는데도 그것을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퍼붓는다. ()
- 나는 말로만 야단치고 교정을 위해 충분한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 ()
- 나는 우리 아이를 다루고 훈육하는 데 더 많은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한다. ()

이제 긍정적인 면을 보도록 합시다. 부모로서 당신 자신에 관한 긍정적인 표현을 일곱 가지 적어 보십시오.

- 1.
- 2.
- 3.
- 4.
- 5.
- 6.
- 7.

계속해서 다음호에도 자녀의 자존감을 키워주는 방법에 대해 다루게 됩니다.

| | | |
|--|----------------------|--------|
| 당신은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아이에게 말할니까? | 항상 | 전혀 |
| | 1 2 3 4 5 6 7 8 9 10 | |
| 당신은 다른 일로 화가 났을 때 아이에게 당신의 기분을 말할니까? | 항상 | 전혀 |
| | 1 2 3 4 5 6 7 8 9 10 | |
|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당신은 구체적인 행동을 취합니까? | 항상 | 전혀 |
| | 1 2 3 4 5 6 7 8 9 10 | |
| 당신은 각 연령의 아이가 할 수 있는 과제나 기술의 발달과정을 알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 | 1 2 3 4 5 6 7 8 9 10 | |
| 당신은 아이를 꾸짖기 전에 그 영역에 대한 지도를 미리 하였습니까? | 항상 | 전혀 |
| | 1 2 3 4 5 6 7 8 9 10 | |
| 당신은 아이의 연령에서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행동을 당신이 통제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 | 1 2 3 4 5 6 7 8 9 10 | |
| 당신은 아이에게서 무엇을 먼저 봅니까? | 긍정적인 면 | 부정적인 면 |
| | 1 2 3 4 5 6 7 8 9 10 | |

교회행사

■ 3월

특별 새벽기도회

■ 3월 18일 (일) 2:30 PM

커버넌트 채플 (MD)

중고등부 단기선교 학부모 모임

■ 3월 18일 (일) - 21 (수)

LPTD 남성 25기

헬로쉽의 어느 날

■ 오이코스 목장 모임에서

40일 새벽 기도회에 오이코스별로 국밥을 준비해야 한다는 광고를 했다.

그 말을 듣고.

이모: 목사님이 연세 드시면서 점차 한 국음식에 입맛이 당기시는 가봐. 빵에서 국밥으로 말야.

전모: 아마 내년에는 전주식 비빔밥으로 준비해야 될 지도 몰라. 잘 해야 돼.

■ 초기 건망증 증세를 보이는 애기

김경숙 집사: 아침에 눈 화장을 하는데 아이새도우를 눈 윗부분은 안 하고 계속 해서 눈 아래부분만 하고 있는 거야

이연일 권사: 화운데이션을 바른 뒤 손을 씻고 또 손에 화운데이션을 덜어서 바르는 거야.

김숙영 권사: **차마 글로 쓸 수 없음**



내리는 눈을 즐기는 초등부 아이들

발행인 : 김원기

편집위원 : 오장석, 이연일, 오진이
지용한, 복진웅, 이창환

기자 : 정선희

타입세팅 : 안선희

인쇄 : KOREA Monitor

Washington

New Covenant

Fellowship Church



NEW
COVENANT
FELLOWSHIP
CHURCH

Non Profit Org
U.S. Postage
Paid
Suburban Md
Permit No 3035

MD Campus: 18901 Waring Station Rd., Germantown, MD. 20874 (301) 444-3100 Fax (301) 444-3115

VA Campus: 1439 Shepard Dr. Sterling, VA. 20164 (703) 444.5634 Fax (703) 444.0567 <http://www.fellowshipusa.com>